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의 현황과 방향*

전은주**

<차 례>

- I. 머리말
- II. 다문화 가정 학생과 언어 교육
- III.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V.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의 개선 방향

I. 머리말

이 글은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권리와 언어 교육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 뒤 이들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언어 교육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언어 교육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다양한 언어 문화권의 이주자들이 유입되면서 다문화 가정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란 우리 사회에서 한 가정 내에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 이상이 다른 언어 문화권의 배경을 가진 가정을 일반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탈북자 출신의 새터민 가정 등을 말한다(조영달 외, 2008 ; 서혁, 2007 ; 윤희원,

* 이 논문은 2009년 8월14일 국어교육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 부산대학교

2008).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입학할 하게 되면서 학교 교육의 장에서도 다양한 언어 문화를 배경으로 한 학생들이 공존하게 되었다. 2008년 10월 현재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 20,171명 중 93.1%가 국제결혼 가정 학생이다 보니 다문화 가정 학생이라고 하면 흔히 어머니가 한국 이외 다른 언어 문화권인 국제결혼 가정 학생을 떠올리게 되었다.

설동훈 외(2005), 조영달 외(2006), 권순희(2007), 원진숙(2008) 등 그간의 다문화 가정 학생 관련 연구에서는 이들이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곤란, 학습 능력 부진, 정체성 혼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¹⁾ 이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문제는 언어와 문화의 이질성에 있으므로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가정 자녀가 겪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며 여러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문화부, 교육과학기술부, 복지부, 법무부, 노동부 등 5개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 취약한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10월에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문화 가정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까지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정책이란 공적인 차원에서 각종 행정 사무를 시행하는 방침을 말한다. 그동안 공적인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을 위한 여러 정책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비판적인 점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우리 학교 사회 안에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 수가 최근 급속도로 늘었고,

1) 원진숙(2009)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의 중심에는 언어의 문제가 깊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언어는 의사소통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법교과적으로 모든 교과 학습의 도구가 되며,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토대이며, 학생들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처방이 먼저 제공되어 이러한 지원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간 소위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라고 다루어졌던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교육 문제는 일반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과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도 그 성격과 양상에서 차이가 있다. 또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은 기존의 국어교육학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학의 연구와 실천에서 축적된 교육 방법과 다른, 한국적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유형에 맞게 이들이 주류 사회 언어인 한국어의 문식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새로운 분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우리 사회와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수준의 성취를 하는데 필요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능력, 즉 문식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교육적인 지원을 언어 교육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II. 다문화 가정 학생과 언어 교육

1.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권리

모든 인간은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모국어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하여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자신의 모국어로 그 표현을 가장 잘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 사람이 어느 공간에 처해 있는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언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 권리의

문제는 언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윤리적으로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류 사회의 언어 문화가 자신의 언어 문화와 다르다고 해서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될 수는 없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언어 문제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즉 다문화 가정 구성원도 자신의 모국어나 부모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그 언어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람들과 언어로 의사를 표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들이나 그 밖에 거주민들이 직업, 의료 보험, 주택, 교육, 사법, 민주주의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정도로 공식어 혹은 국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약화되거나 막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김재원 외 역, 2001 : 86)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언어적 권리를 인정하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게 하려면 주류 사회에서는 주류 사회의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절하게 언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그들의 언어를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 또한 함께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 이와 동시에 주류 사회의 언어를 배울 수 없는 혹은 배울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모국어를 주류 사회 언어로 통역 혹은 번역해 주어 언어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언어적 소수 집단의 언어 권리의 문제는 언어 정책을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언어 교육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도 고려되어야 중요한 부분이다. 언어적 소수자들이 주류 사회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 정책과 언어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 가정 학생과 달리 주류 사회의 언어에 대하여 제한적인 사용 능력을 가진 다문화 가정 학생이 학교 환경에 적응하고 학업에서 충분한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언어적 지원을 하는 언어 교육 정책은 그 학생이 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언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다문화 가정 학생의 유형과 언어 교육의 관점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모어로 구사하며 자란 절대 다수의 일반 가정 학생에 비하여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다른 언어 문화권 출신이며,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어로 구사하는 경우도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은 언어 문화적으로 소수자일 수밖에 없다. 특히 학교 교육적 상황에서는 학생의 언어 사용 능력은 바로 그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간이 의사소통 문제에 있으므로 교육 정책적 관점에서나 학술적인 연구의 관점에서 공히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능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현재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이라고 부르는 집단은 크게 국제결혼 가정 학생, 외국인 근로자 가정 학생, 새터민 가정 학생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언어적 배경, 문화적 배경, 성장 배경, 기초 의사소통 능력 등에서 너무 이질적인 부분이 많아서 언어 교육에서 동일한 관점이나 방법이 적용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일부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적 지원이 곧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혹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고 보는 등식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양상을 일차원적으로 매우 단순하게 파악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흔히 다문화 국가라고 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우리나라의 다문화적 상황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경우는 공적 교육에서 제2언어에 대한 교육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개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원주민 등의 자녀이다. 현재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나 그 자녀의 한국어 교육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적 방법론’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이라 일컫는 절대 다수는 국제결혼 가정 학생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언어 교육 지원을 다문화 가정 학생의 유형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줄고(2008), 서혁(2009), 원진숙(2009) 등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어떤 유형의 다문화 가정 학생인가에 따라 겪고 있는 언어의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맞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국제결혼 가정 학생은 부모 중의 한 명이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 왔다하더라도 대부분의 가족이 한국어를 쓰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으므로 일상적 의사소통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 와서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가 양육을 하면서 교육적인 도움을 크게 주지 못하여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 새터민 가정 학생은 이 둘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새터민 가정 학생의 경우 남한과 북한의 언어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보다는 사회 체제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북한에서 학교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남한의 학습 내용과 차이가 많고, 탈북 이후 남한에 정착하기 전까지 떠돌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학습 부진을 겪게 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 가정 학생의 경우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언어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야 하나 국제결혼 가정 학생과 새터민 가정 학생의 경우는 자국어 교육적 관점에서 학습 부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줄고(2008)에서는 한 사회에서 언어적 소수 집단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언어 교육의 관점을, 제2언어 교육의 관점, 자국어 교육의 관점, 외국어 교육의 관점, 이중언어 교육의 관점 등 4가지로 나누어 살펴 본 바가 있다. 제2언어 교육의 관점은 언어적 소수자가 주류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 구성원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사회에 통용되는 주류 언어를 교수·학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국어 교육의 관점은 언어적 소수 집단이라도 그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는 주류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모국어 화자에게 교육하는 것과 같은 관점에서 언어를 교수·학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어 교육의 관점은 이주민이나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들이 자

신의 자국어, 혹은 부모의 언어를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언어 교육의 관점은 언어적 소수자가 모국어 혹은 계승어와 주류 사회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언어 교육의 관점, 자국어 교육의 관점, 이중언어 교육의 관점은 주류 사회의 언어를 가르친다는 면에는 같으나 주류 사회의 언어를 제2언어로 가르치는가 모국어인 자국어 교육으로 가르치는가 즉 ‘그 언어가 학습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외국어 교육의 관점과 이중언어 교육의 관점은 언어적 소수자의 모어 혹은 계승어를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같으나 이중언어 교육적 관점은 주류 사회의 언어와 언어적 소수자의 언어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적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외국어 교육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등을 특별한 구분 없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또 이들 가정의 자녀들의 학교 교육 문제를 다룰 때 역시 ‘다문화 가정 학생’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하나 이들은 모두 주류 사회의 언어 사용에 일반 가정 학생에 비하여 제한적 능력을 지녔다는 공통점 이외에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다.

3.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의 관계

우리 사회에 결혼이주자,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등이 급증하면서 다문화 교육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Banks(2001)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문화적, 인종적, 민족적, 성별, 사회적 계급의 특성에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장인실, 2003-412 재인용). 이 같은 개념은 모든 사람을 차별없이 평등하게 바라보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은 사회 구성원이 언어 문화적으로 다양해지면서 빚어지는 여러 갈등과 문제들을 완화 혹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Bank(2002)에서는 이 같은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① 각 개인이 다른 문화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줄 알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는 것, ② 역사와 문화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각하게 하는 것, ③ 특정 민족, 인종 집단의 구성원들이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경험하는 고통과 차별을 줄이는 것, ④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상호 소통에 필요한 읽기와 쓰기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원진숙, 2008 : 276). 다문화 교육의 목표 중 하나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읽기와 쓰기 기능을 익힐 수 있게 설정한 것은 다문화 교육에서도 언어적 소수자의 언어 교육을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졸고(2008)에서는 밝힌 바가 있듯이 이러한 목표 설정은 매우 제한적인 관점에서 언어 교육에 접근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언어적 소수자 입장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원활하게 역할을 하고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기능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의사소통의 차원뿐만 아니라 학문적 성취를 위한 문식성 역시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주류 사회의 언어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 매개어이며, 언어적 소수자가 주류 사회와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다. 즉 다문화사회에서 언어적 소수자에게 주류 사회의 언어에 대한 교육은 사회 구성원의 권리 실현과 인적 자원 개발, 사회의 발전과 화합 등을 위한 가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졸고, 2008). 그러므로 다문화교육을 위한 여러 내용 중 주류 사회의 언어를 배우는 것, 즉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서 언어를 교육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Ⅲ.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국가가 공적으로 특정 목적 하에 어떤 정책을 기획할 때는 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절대 다수가 동의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타당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특히 언어 교육에 대한 것은 단시간 내 문제를 해결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모두가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가야 한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은 일차적으로 이들이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문식성 함양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09년 8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여러 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장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여러 교육 정책 중 언어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 정책의 대상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국제결혼 가정이 많은 농촌 지역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공단 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사회 환경적 특성상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해당 지역 학교에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교육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은 바

로 그러한 관심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²⁾에서는 2008년 6월 ‘2008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을, 2008년 10월 ‘다문화 가정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을, 그리고 2009년 3월 ‘09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들을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이 정책 추진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있다.

〈표 1〉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추진 배경과 목적

	2008년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2008. 6)	다문화 가정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2008. 10)	09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2009. 3)
추진 주체	교과부 잠재인력정책과	교과부 외 16개 시도 지역 교육청	교과부 잠재인력정책과
추진 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의 증가로 다양해진 우리 사회 구성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사회적응 지원 확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국정지표인 『인재대국』 실현을 위해, 다문화 가정 학생을 다언어를 구사하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 필요 다문화 가정 학생의 조기 적응·교육적 성취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사회 인식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사회 구성원의 언어·문화적 다양화가 급속히 진행 다문화 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 필요 ‘다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사회적 인식 개선 강화

이 정책의 대상은 <표 1>에서 보듯이 ‘다문화 가정 학생’의 개념과 유형이 무엇인지 밝혀져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증가를 추진 배경에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자녀를 다문화 가정 학생으로 보고 교육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2) 이하 ‘교과부’로 줄여서 부르겠다.

같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개념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이견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제결혼 가정 학생, 외국인 근로자 가정 학생, 새터민 가정 학생 등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기는 하나 이를 더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권순희(2008 : 116)에서는 기존의 다문화 가정 유형에 ‘재외동포 및 장기 외국 체류 귀국 가정’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줄고(2009)에서도 국내에 다시 입국한 재외 동포 가정의 경우나 유학, 파견근무로 인하여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뒤 국내에 귀국한 가정의 경우 그 자녀들 역시 기존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가정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어가 서툴고 우리의 사회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이들 역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충분히 일리가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가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또 서혁(2009)에서는 국내 한부모 가정과 그 구성원, 장애인을 모두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사회, 정치, 경제, 심리, 신체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교포 자녀와 단기간 국외 체류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의의 다문화 교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 학생, 외국인근로자 가정 학생이 아니더라도 제한적 언어 사용 능력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들은 모두 언어 교육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정보센터에서 2007년 3월 1일~2008년 2월 29일까지 단위 학교 별로 귀국 학생 수를 조사·집계한 자료를 보면 2007년 한 해 동안 20,277명의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에 편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07학년도 체류기간별 귀국 학생 현황(단위 : 명)

구 분	계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인원(명)	20,277	14,728	2,298	1,895	1,356
백분율(%)	100.00	72.63	11.33	9.35	6.69

위 <표 2>에서 보듯이 이들 중 72.63%에 해당하는 14,728명은 해외

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이었지만 나머지 5,549명은 해외 체류 기간이 2년 이상이었다. 이는 2008년 10월 집계된 국제결혼가정 학생 18,769명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 학생 1,402명을 합한 20,171명과 거의 비슷한 수이다. 조기 유학, 파견 동행, 해외 이주 등의 원인으로 출국했던 학생이 귀국해서 국내 학교에 편입하거나 입학했을 때 국제결혼가정 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가정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학생들 역시 언어와 문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시간을 보낸다. 2002학년도 이후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귀국학생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들의 언어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나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없이 서울, 부산, 경기, 대전 등의 지역 몇 개 학교에 귀국자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의 실정이다. 따라서 귀국학생 역시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언어 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의 언어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교육 정책의 목표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교육 지원을 한 후 이들 학생이 도달하여야 할 지점을 현재 진행 중인 교육 지원 방안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표 3〉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의 목표

	2008년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2008. 6)	다문화 가정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2008. 10)	09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2009. 3)
추진 목표	1.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 및 사회 통합 2. 일반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이해 제고 3. 다문화 가정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	1.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능력·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통해 초기 적응 및 교육 격차 해소 2.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일반 학생 및 사회의 다문화 관련 인식 제고	1.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 2.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사회적 역량 강화 3. 다문화 교육 기반 강화 및 다문화 이해 확산

문서가 작성된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표 3>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의 목표 중 언어 교육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 격차 해소’, ‘초기 학교 적응’, ‘다문화 가정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중 다문화 가정 학생을 ‘다언어를 구사하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유형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 유용성 여부가 달라진다. 이 목표는 부모 중 한 명이상이 한국어와 다른 언어를 모어로 구사하는 국제결혼가정 학생과 외국인근로자 가정 학생에게는 합당할 수 있으나 새터민 가정 학생에게는 도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다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게 하여 서로를 인정하게 하고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상생하도록 하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은 널리 인지되어 사회적 공감을 충분히 얻고 있다. 현재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공적으로 시행되는 언어 교육은 대부분 다문화교육을 위한 기반 프로그램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의 특성에 따른 유형으로 세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한국어교육, 혹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교육이라 표현해 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언어 교육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것을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으로 한정해서는 볼 수는 없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은 학생의 특성에 따라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과 ‘한국어 문식성(KLD, Korean literacy development) 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외국인 근로자 가정 학생에게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이, 국제결혼가정 학생과 새터민 가정 학생, 그리고 포함될 수 있다면 귀국학생 등에게는 ‘한국어 문식성(KLD, Korean literacy development) 교육’의 형태로 언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학생의 언어 교육 지원의 목표를 설정할 때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언어 교육의 형태를 구분하고 이에 맞는 교육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³⁾

3. 언어 교육을 위한 정책 과제

다문화 가정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외국에서 온 부모가 귀화를 하여 국내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하는 기관도 문화부, 복지부, 법무부, 교과부, 노동부 등 5개인데, 이들 부처에서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을 하는 곳은 복지부와 교과부인데, 복지부의 경우는 취학 전 아동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교과부의 경우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신은향(2009)에서는 교과부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야 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 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8조)’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다문화 가정 학생이 의사소통의 문제로 학습 부진을 겪는다면 학교에서 언어 교육을 지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설명해 준다.

박성혁(2007)에 의하면 다문화 교육 정책 중 한국어 교육에 대한 내용이 70.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나 조항록(2009)에서는 이들 정책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다문화 가정 자녀를 특정하여 제시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 여러 부처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지만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정책은 주로 교과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어 교육 관련 정책이 많아 보여도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부분은 그리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3) KSL 교육의 목표 방향은 서혁(2007, 2009), 원진숙(2008, 2009), 졸고(2008) 등에서 설정한 바 있다.

이다. 최근 정책적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하여 시행된 교육 지원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표 5〉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계획(교과부, 2008~2009)

2008년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2008. 6)	다문화 가정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2008. 10)	09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2009. 3)
<p>①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교육 지원 관련 부처 및 교육청과의 협의 강화 • 시·도별 '다문화교육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개발 추진 <p>②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학습 능력 향상 지원</u> • ㉡ <u>다문화 가정 학생의 자아정체성(Identity) 확립 지원</u> • 일반 학생 등의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 •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 다문화 관련 이해 제고 <p>③ 제도 개선 및 성과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지역별 다문화교육 사업 평가체계 구축 • 지역별 다문화교육 우수 사례 발굴·확산 • 다문화교육 정책 중장기 방향 연구 실시 	<p>①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기초학력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취학전 유아의 기본 학습 능력 발달 지원</u> • ㉣ <u>취학후 한국어 등 기초 학습능력 향상</u> • 기초학력 미달학생 맞춤형 지도 <p>②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교육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단위 한국어·정보화 교육 강화 • 다문화 가정 학부모용 학교생활 안내책자 발간 • '다문화 가정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 자원봉사 통역도우미 운영 <p>③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교사, 관리직 교원 연수 강화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실시 • 교대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 • 다문화 요소를 반영한 교과서 집필 <p>④ 다문화 이해 제고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학교 내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u> • 다문화 이해 촉진 영상물 제작 • '다문화교육 체험 공모전' 실시 	<p>① 교과부 지정 과제(중앙다문화교육센터 수행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다문화 가정 학생(초·중·지학년) 대상 언어·인지 진단도구 개발</u> • 교사 연수(60시간, 직무연수) •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교육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 교과서/교육과정의 다문화화 요소 분석 및 개정방안 • 다문화 가정 학생 지도교사를 위한 매뉴얼(학부모 상담 포함) • 다문화 가정 학생 특성별(지역별, 출신국별) 현황 분석 및 DB구축 •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유형 및 지도서 개발 • 다문화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홈페이지 운영) • 사대생을 활용한 멘토링 사업 <p>② 다문화교육 우수 사례 발표대회 등 실시</p> <p>③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p> <p>④ 다문화 가정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p>

<표 5>에 나타나듯이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은 다문화교육에 초점이 놓여 있으며, 대개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기초학력 향상, 다문화 이해,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다문화 가정 학부모 교육 등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에 밑줄 친 ㉠~㉣ 부분은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혹은 한국어 교육에 관한 것으로,⁵⁾ 이들 과제가 전체 지원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비하여 그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특히 올해 교육과학기술부(2009)에서 국가적 정책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9개를 지정하여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수행하게 한 것을 보면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제는 9개중 1개로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언어·인지 진단 도구 개발’뿐이다. 이들 언어 교육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의 경향을 살필 수 있다.

〈표 6〉 언어 교육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언어 교육 관련 사업	세부 내용	
	교육 실행 지원	연구 개발 지원
㉠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학습 능력 향상 지원	• 한국어(KSL)반, 부모와 함께 하는 한글 교실, 방과후 교실 운영	—
㉡ 다문화 가정 학생의 자아정체성(Identity) 확립 지원	•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모어 교육 및 출신국 문화 이해를 지원	—
㉣ 취학 전 유아의 기본학습 능력 발달 지원	• 다문화 가정 유아가 많은 지역(서울, 경기, 부산 등 9 개 지역 우선 실시(모니터링) 후 단계적으로 확대	• 취학 전 다문화 가정 유아 등을 위한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 평가도구, 수준별 발달 지원 프로그램 등 4종 개발 및 보급

4)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2007년 수행한 과제 7개 중 1개(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다언어 한국어교재 초급 연구 개발)가, 2008년 수행한 과제 7개 중 2개(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을 위한 중급 교재 개발, 다문화 교사를 위한 교과별-국어, 도덕, 사회-교수 학습 유형 개발)가 언어 교육과 관련된 것이다.

5) 다문화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 지원은 제외하였다.

언어 교육 관련 사업	세부 내용	
	교육 실행 지원	연구 개발 지원
㉔ 취학 전 유아의 기초학습 능력 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미이용 유아를 위한 평가·발달 지원 프로그램 등 교육 서비스 제공(희망교육사, 주 3~4회/1시간) 제공 	
㉕ 취학 후 한국어 등 기초학습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결과,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보충 프로그램(방과후 학교)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저학년) 대상 언어·인지 진단도구 개발(유아와 연계·개발) •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보충 한국어교재 등 개발·보급
㉖ 학교 내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 학생의 부모 출신국 언어 학습 지원(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및 부모 출신국 언어를 구사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초 5~6학년, 중고생 중 희망학생)이 부모 출신국의 언어·문화를 이해하고 관련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대학 등에서 교육 지원 	—
㉗ 다문화 가정 학생(초등 저학년) 대상 언어·인지 진단도구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인지 영역 수준 진단을 위한 도구 개발 •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에 맞는 진단도구 개발 • 수준별 준거/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학생을 위한 수준별 학습 지도 프로그램 개발 —협력학교/시범집단(일반학생 및 다문화 가정 학생) 선정을 통한 테스트 및 도구/자료 검증

즉, 위 표에서 살필 수 있듯이 2008년 이후 현재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에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은 교육 대상 언어가 무엇인가에 따라 한국어(KSL) 교육과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현재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를 제2언어로의 한국어 교육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수정되어야 하지만, 이들 교육 정책이 단순히 학생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목표를 두기보다 궁극적으로 학습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 또 다문화 가정 학생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부모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면서 국제적인 인적 자원으로 자랄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중언어 교육적 관점을 지향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위 <표 6>의 언어 교육 관련 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언어 교육 자체에 대한 지원인 ‘교육 실행 정책’과 언어 교육에 관한 연구 개발 지원인 ‘연구 개발 정책’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교육 실행 정책의 경우는 주로 다문화 가정 학생이 언어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연구 개발 정책의 경우는 언어 수준 진단 도구 개발과 한국어 교재 개발하는 사업이 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계획에 따라 수행했을 때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언어 교육을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언어 교육 실행 정책과 연구 개발 정책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전 연구 개발 지원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하여 교육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연구 개발 지원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교육에 관한 문제는 기존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방법으로 접근할 성격은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 교육받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사용 현상에 대한 연구와 적절한 교육 지원 방법에 대한 연구, 각종 평가 도구 개발 연구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교육에 관한 연구 개발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지원이 먼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문화 가정 학생의 유형별 언어 사용 실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능력에 대한 진단 평가 방법, 이들에게 적절한 언어 교육과정 등에 대한 연구도 되지 않은 상태에

서 한국어(KSL)반 운영, 방과 후 교실 운영 등이 먼저 진행되고 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⁶⁾

둘째,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교육을 담당할 교사 교육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의 <표 5>를 보면 세 교육 지원 계획 모두에 ‘교사 연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이므로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어떻게 언어를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다. 현재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대부분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나 제한적인 한국어 문식성을 가진 학습자의 언어 교육 등에 대해서는 지식과 지도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학생의 상태에 맞는 언어 교육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⁷⁾

셋째, 취학 전 다문화 가정 유아와 다문화 가정 부모의 언어 교육이 다른 정부 기관의 한국어교육 지원과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표 4>에서 보듯이 복지부에서 취학 전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이 있고, 문화부, 복지부, 법무부, 노동부 등도 외국인 근로자나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이 있다. 동일한 사업을 여러 부처가 각각 시행하는 것보다 서로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공조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 유아에 대한 언어 교육 관련 연구 개발을 한 기관에서 전달을 하고 그 연구 결과는 여러 기관과 공유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한 기관에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전

6) 원진숙(2009)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교육 실태에 대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많은 몇몇 일선 학교에서 시험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여러 가지 형태·경기도 가평군 미원 초등학교의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이태원 보광 초등학교의 방과후 KSL 학급, 안산 원일 초등학교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 학급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이론적 논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이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 교육은 물론이고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및 지도 방법 등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7) 교사에게 연수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 이외에 아예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수-학습 방법론’의 성격을 가진 강좌를 개설하여 예비교사들이 미리 이수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문적인 지식을 갖춘 교사를 중점적으로 양성하여 그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일한 한국어 교육 정책 사업이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수행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질 낮은 결과를 빚지 않도록 부처 간에 동일 사업 여부를 점검해 보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 개발 정책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효과적이고 적절한 언어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앞의 <표 6>을 보면 2009년 지원 계획에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인지 영역 수준 진단을 위한 도구 개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진단된 결과로 학생들의 언어 능력의 수준을 나누어 학생의 능력에 맞는 수준별 학습 지도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2009)에 따르면 이미 2008년에 45개 학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하여 3,120명의 다문화 가정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전후 관계를 따져보면 지금은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다문화 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언어 교육을 하고 있으나 향후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수준에 맞게 맞춤형 혹은 수준별 언어 지도를 하겠다는 취지를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다문화 가정 학생에 맞는 수준별 언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수행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제시된 교과부의 정책 중 언어 교육 관련 사업을 정리한 <표 6>에서는 그러한 연구 개발 계획의 흐름을 읽을 수가 없다. 또, 교과부(2008)에 다문화교육 정책 <중장기 계획 주요 내용>을 <표 7>과 같이 명시한 바 있는데 그 내용에도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교육 연구 정책에 대한 부분은 없다.

〈표 7〉 다문화 교육의 중장기 계획 주요 내용(교과부, 2008 : 6)

〈중장기 계획 주요 내용〉
①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②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조직 및 평가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교육 시너지 제고를 위해 부처 간, 중앙-지방, 지역 내 협의체 구성 •시·도 다문화교육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구축, 우수 사례 발굴 -다문화교육 추진 전담조직·예산 확대, 관련 제도개선 추진
③ 지역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및 맞춤형 다문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등 현장 중심의 연구 및 사업 관리, 교육감의 다문화교육 지원 관련 역할 강화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보수교육·이중언어 교육 및 상담 지원,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수용성 제고

다만, 맞춤형 다문화 교육을 위해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보수 교육과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이 부진한 교과 학습을 보충하게 하고, 부모 나라의 언어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류 사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적인 연구 정책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들 정책 과제가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계획’이라는 정책의 목표 실현에 적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주류 사회에서 생활하는 과정에는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로 인한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성원이 성인인가, 유아인가, 학생인가 등에 따라 어려움과 갈등 요인이 다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다.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학습 부진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은 다문화 교육 전반에 대하여 접근하다가 보니, <표 3>과 같이 이 정책의 제1의 목표를 ‘교육 격차 해소’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언어 교육과 교육 지원에 대한 계획은 소홀히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정책은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지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전 연구 개발 지원 미비, 교사 교육 문제, 지원 중복의 문제, 중장기적 계획 부재, 정책 사업 내용 타당성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 목표, 과제 간의 관련성을 염두에 둔 비판적인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

4. 교육 정책의 추진 체계

교육 정책이 지향하는 바대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추진 체계가 실제적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교육 정책은 현재 교과부가 중심이 되어 시행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이라 하더라도 국내 초중등학교에서 일반 가정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므로 그들의 한국어 능력이나 제한된 언어 사용 능력에 대한 교육 역시 기존의 교육 행정 체계 속에서 지원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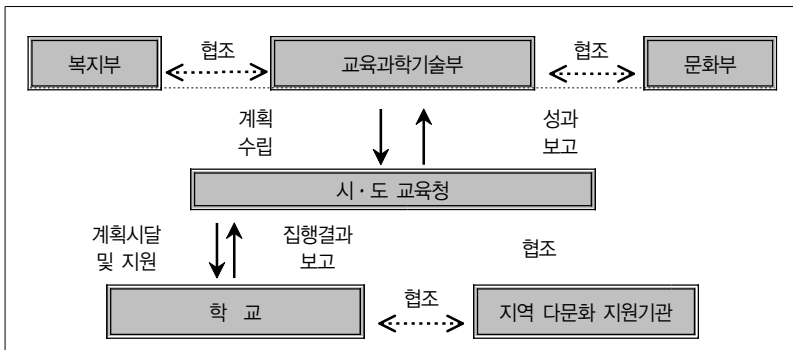
그러나 일반적인 교과에 대한 교육과 달리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교육의 부분은 이미 살펴보았다시피 다른 부처에서 추진 중인 다문화 가정 지원과 교차하는 부분이 있다. 또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실현될 때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불필요하게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어 교육 정책의 추진 체계가 정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개발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의 한국어 교재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1(교육인적자원부 교과교육연구, 한국열린교육교과교육연구회), 즐거운 학교 함께 배우는 한국어(서울특별시 교육청), 행복한 가정 함께 배우는 한국어(서울특별시 교육청), 한국의 언어와 문화2(교육부 경기교육청), 학교가 좋아요(서울대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우리누리배움마당(미원초등학교)’ 등 여러 권이다. 이들 교재는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는 목적을 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 특히 서울특별시 교육

청에서 발간한 ‘즐거운 학교 함께 배우는 한국어’와 다문화교육 정책연구 학교인 경기도 미원초등학교의 ‘우리누리배움마당’은 ‘학교 생활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학교생활과 관련된 도움을 주기 위해 구성된 교과서라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초중등과정의 교과 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의 내용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정 또는 검인정 체제로 개발이 되며, 국정 교과서의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는 일선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⁸⁾ 계획성 없이 필요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만들어낸 비슷비슷한 성격의 교과서보다는 연구 개발을 통하여 전문적,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양질의 교과서가 학습자에게 더 좋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교과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등이 원활하게 상호의사소통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를 한다면 이러한 문제나 이와 유사한 문제는 개선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08)에서도 그간의 정책 추진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을 계획하면서 이 정책의 추진 체계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1> 다문화 가정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추진 체계(교과부, 2008 : 3)



8) 학교 교육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을 편제상 교과로 볼지 아니면 재량 활동이나 특별 활동으로 볼지 그 성격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 추진 체계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기반 프로그램으로서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추진 체계를 보면 교과부에서 교육 정책을 기획하면 이에 따라 교육청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이 이러한 계획을 학교에 시달하고 학교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즉, 정책 실행이 위에서 아래의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아무리 기획이 잘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계획 수립이나 실제 실행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청 단계나 학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반영하여 정책이나 실행계획이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하위에서 상위 기관으로의 ‘성과 보고’나 ‘집행결과보고’만으로는 그것이 어렵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사용 상황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하위 기관인 학교에서 정책 방향에 대하여 안을 내놓을 수도 있어야 하며, 실행한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해서 실행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교과부와 일선 학교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IV.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의 개선 방향

이 글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의 여러 관점을 살펴보고,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언어 교육이 갖는 의미를 정리해 보았다. 또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문식성 신장을 위하여 현재 중앙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과 사업을 점검해 봄으로써 다문화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의 현 상태를 진단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향후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에서 지향해야 할 바를 살펴보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순혈주의와 민족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가치관도 다문화적 상황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중이

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적 상황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이민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 가정에 의한 것보다는 국제결혼 가정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분단국가라는 상황에서 발생한 새터민 가정 역시 다문화적 상황에 노출된 언어적 소수 집단이라는 점 역시 다른 나라와 차이가 난다. 세계적으로 여러 다문화 국가들은 언어적 소수자를 위한 제2언어 교육을, 사회적 인적 자원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학습자의 지적 능력 계발과 학습자의 생활, 특히 학문적 영역에서의 성취가 원활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고, 학습자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문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조고, 2008). 그러므로 학교 교육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은 언어적 소수자를 위한 제2언어 교육의 동향을 반영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다문화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한다면 언어 교육의 경우, 그 정책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은 다문화 교육의 범주 하에,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결혼 가정 학생이 다문화 가정 학생의 93.1%를 차지하는 현실적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문제가 크다. 또 새터민 가정 학생과 귀국 학생 역시 언어와 문화로 인하여 학습 부진을 겪는 경우이므로 이들을 위한 언어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다문화 가정 학생의 개념을 맞게 규정한 뒤 이에 맞는 언어 교육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의 목표 역시 대상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국제결혼 가정 학생의 국어 사용 능력은 조고(2009)에서 밝힌 바가 있듯이 일상적 의사소통 능력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학업에서 제한된 몇 부분에 취약한 언어 사용 능력을 보인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을 기획할 때는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서 일상적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을 우선 목표로 해야 하는 경우와 국제결혼 가정 학생, 새터민 가정 학생과 같이 제한된 국어 사용 능력을 가진 학생의 한국어 문식성 신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을 목표를 대상의 특성에 맞게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 ‘한국어 문식성(KLD) 교육’으로 구분하여 목표를 설정한 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귀국 학생 역시 다문화 가정 학생의 개념에 포함되어 KLD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은 다문화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정책 방향 하에 시행되는 ‘교사 연수’의 내용에는 언어 교육에 대한 부분이 매우 소략하다. 결국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정작 KSL과 KLD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학생을 지도하게 되는 것이다. 다문화 교육에서 주류 언어에 대한 교육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KSL과 KLD 교육 내용과 방법을 이해’에만 초점을 맞춘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이 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언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전 연구와 개발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 교육이란 의도적인 계획에 의하여 학생들을 목표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한 준비 없이 일단 먼저 교육적 지원을 하고 차차로 지원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교육 결과의 효과와 효율성에 큰 문제가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의 유형에 맞는 언어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진단 평가 도구 등에 대한 연구 개발에 충분한 인적, 시간적, 물질적 투자가 필요하다.

다섯째,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사용 현상과 언어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다문화 가정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언어 교육을 위해서는 이들의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자료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유형별로 언어 사용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이 학생의 나이, 부모의 언어 문화, 국내 거주 기간, 거주 지역, 경제력, 교과별 성적 등의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또 KSL 습득 과정 연구, KLD에 관한 연구 등도 장기적인 계획 하에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구성과 효과적인 언어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이 가능하다.

여섯째,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가 수정되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교육과 언어 교육 연구 지원 등이 여러 기관에서 중복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관 간에 공조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위에서 아래로의 언어 교육 정책 수행 체계는 언어 교육의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여 과정을 개선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언어 교육 실행을 위한 핵심 주체인 학교 단위에서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 밖에도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교육을 통합 교육으로 할 것인지 분리 교육으로 할 것인지 그 형태에 대한 결정,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상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논의, 다문화 가정 학생용 표준 언어 교육과정 제정 문제 등도 향후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정 학생의 유형은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언어적 소수 집단이라는 것이며 이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과 교육적 성취를 위해서는 한국어의사소통 능력이나 국어 문식성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이 분야의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9. 10. 29. 투고되었으며, 2009. 11. 7. 심사가 시작되어 2009. 11. 23. 심사 결과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ㄱ), 『2008년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외(2008 ㄴ), 『다문화 가정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8 ㄷ), 『2007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및 귀국 통계』, 교육과
 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잠재인력정책과(2009), 『09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교
 육과학기술부.
- 권순희(2007),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실태와 교사의 인식”, 2007년 서울교육
 대학교 초등국어교육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 권순희(2008),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126, 한국어
 교육학회.
- 서울특별시 교육청(2008), 2009년 주요 업무 계획,
- 서 혁(2007), “열린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다문화 시대의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2007년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 서 혁(2009),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향 및 원리”, 다문화 가정 학
 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탐색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신은향(2009),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 한국어교육학회 267회 학술발표대
 회 자료집.
- 원진숙(2007), “다문화 시대 국어교육의 역할”, 국어교육학회 37회 정기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원진숙(2008), “다문화 시대의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
 어 교육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2, 국어교육학회.
- 원진숙(2009),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학
 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탐색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장인실(2003),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이 한국 교사 교육과정 개혁에 주는
 시사점”, 『교육과정연구』 21-3.
- 전은주(2008), “다문화 사회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목표 설정 방
 향”, 『국어교육학연구』 3 3, 629~656, 국어교육학회.
- 전은주(2009 ㄱ), “다문화 학습자와 일반 학습자의 국어과 교수-학습에 관한 비교 연
 구”, 『국어교육학연구』 34.

전은주(2009),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의사소통능력과 국어과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청람어문교육』 39.

조영달 외(2008), 『다문화 교육의 이해를 위한 교양 교재 저술』, 교육인적자원부.

조항록(2009),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협력 체제”,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탐색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보고서.

Bernard Spolsky 지음, 김재원 외 역(2001), 『사회언어학』, 박이정.

Stephen May(2005), Language Policy and Minority Language, Eli Hinkel ed.(2005), *Handbook of Research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 Inc.

<http://www.mest.go.kr>

<http://www.pen.go.kr/content/?step1=6>

<초록>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의 현황과 방향

전은주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언어 교육은 언어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적 상황은 외국인 근로자 가정 보다 국제결혼 가정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분단국가라는 상황에서 발생한 새터민 가정 역시 다문화적 상황에 노출된 언어적 소수 집단이라는 점이 다른 나라와 차이가 난다. 또 귀국 가정 학생 역시 언어와 문화로 인하여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은 다문화 가정 학생의 유형과 우리나라의 다문화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첫째, 교육 지원 정책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 둘째, 언어 교육의 목표 역시 대상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언어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전 연구와 개발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 다섯째, 언어 사용 현상과 언어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이 필요하다. 여섯째, 언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가 수정되어야 한다.

【핵심어】 다문화 가정 학생, 언어 권리, 언어 교육, 다문화 교육, 언어 교육 정책

<Abstract>

**Current Status of Language Education Policy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y**

Jeon, Eun-joo

Language education for a multi-cultural student is a way to realize his language right. Multi-cultural situation in our country is characterized by predominance of international marriage rather than by foreign laborer family. Besides, a migrants or defectants from North Korea on the background of a separated nation are a linguistic minority, which adds to the multi-cultural situation. Moreover, returnee students need some educational support because of unaccustomed language and culture and, therefore, should be included as one type of multi-cultural family students.

Both the type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tudents and the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of our country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language educational policy for such students at school. For this, the present study proposes that our language education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y students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the target population for the educational support should be clear. Second, the purpose of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level of the target population. Third, the specialization of the teachers for the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warranted. Fourth, preliminary research and development necessary for language education support is needed. Fifth, long-term research plan is needed for language use and language education. Sixth, booster system needs to be corrected for efficient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student, language right, language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language education policy

【토론문】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토론문

박형우(한국교원대학교)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다문화 가정이라고 불리는 구성원의 출현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인구 감소의 추세, 고령화 문제와 함께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 대한 교육 문제 또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차원에서 현재 매우 깊이 있게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확산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그 확산의 속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의 학생 교육 문제는 우리 미래 사회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자의 이번 발표문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 문제점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의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고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토론자는 사실 이러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교육 정책에 대해서 아는 바가 그다지 많지 않다. 직간접적으로 다문화 가정과 관련한 언어 교육을 일부 진행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정책적 대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견해를 많이 참고해야 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로서의 소임에 따라 현재 연구자가 제시한 발표문을 중심으로 토론자로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볼

까 한다.

우선 발표문에서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 대한 언어 교육의 관점 4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자국어 교육의 관점’은 “언어적 소수 집단이라도 그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는 주류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모국어 화자에게 교육하는 것과 같은 관점에서 언어를 교수—학습해야 하는 한다.”라는 입장이며, ‘외국어 교육의 관점’은 “이주민이나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들이 자신의 자국어, 혹은 부모의 언어를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 사용이 적절한 것인가에 의문이 있다. ‘제2언어 교육의 관점’은 언어적 소수자(다문화 가정의 학생)의 입장에서 제2언어가 되는 주류 언어(한국어)를 배우는 것이고, ‘이중언어 교육의 관점’ 역시 언어적 소수자가 모국어와 주류 사회의 언어를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언어적 소수자의 입장에서 ‘자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자국어’는 오히려 주류 언어보다는 모국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외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외국어’도 언어적 소수자의 입장에서는 주류 언어를 의미하는 말처럼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처럼 관련 용어에서 경우에 따라 주체가 바뀔므로 인해 용어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보인다. 즉 ‘제2언어 교육의 관점’, ‘이중언어 교육의 관점’은 언어적 소수자의 입장에서 설명한 용어이고, ‘자국어 교육의 관점’, ‘외국어 교육의 관점’은 주류 언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설명한 용어로 보인다. 또한 ‘자국어 교육의 관점’의 경우 모국어 사용자와 같은 언어 교육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의 관점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즉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없다면 이를 관련 교육의 관점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로 연구자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한적 언어 사용 능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포함하면서 귀국 학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들 역시 일정한 언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발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현황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자면 실제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점을 보고하고 있는 자료가 없으며, 그 어려움이 다른 다문화 가정 학생의 그것과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확인된 것이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학생들의 문제를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셋째로 발표자는 한국어 교육 정책이 “단순히 학생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목표를 두기보다 궁극적으로 학습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과 ‘학습능력 향상’이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교육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 자연스럽게 학습능력의 향상으로 전이되는 것이라면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전이 이상의 것이라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교육적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새로운 교육적 처치는 국어교육 또는 한국어 교육 내에서 논의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결국 이렇게 되면 ‘학습능력의 향상’이라는 목표는 한국어 교육 정책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연구자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넷째로 연구자는 관련 정책에서 교사 교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주 9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수-학습 방법론’의 성격을 가진 강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교과부의 지원에 따라서 교육대학과 대학의 초등교육과에서는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강좌를 개설하고 그 일부로 언어 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강좌가 모두 ‘언어 교수-학습 방법론’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관련 강좌 개설이 초등교사 양성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섯째로 연구자는 <표 7>과 관련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개발 과정이 중복되고 비전문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교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사

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어에 기반을 둔 교재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표준어를 바탕으로 한 규범화된 교재보다는 현지 실정과 상황에 맞게 구성된 한국어 교재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국정이나 검인정 교재가 전문성과 체계적인 특성을 갖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지역의 현실이 배제된 획일화된 교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제안한 다양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 추가하여 다문화 가정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함께하는 모국어 화자 학생들에 대한 다문화 관련 언어 교육 문제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교사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있다면 당연히 모국어 화자 학생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 또한 필요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과 관련한 언어적 문제는 단순히 그 학생들에게만 문제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당연히 다문화 가정의 학생뿐만 아니라 모국어 화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 또한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구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